



교섭속보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노재옥

8.17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 접수

8.18 산별총파업 승리위한 온라인 결의대회

9.1 파업전야제, 9.2 산별 총파업

투쟁의 한 걸음씩 전진, 그리고 승리!

8월 17일, 총파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8월 13일 노사 5차 실무교섭을 끝으로 산별현장교섭의 무대는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조정신청 접수 후 파업 전 15일 간 2차례의(8월 26일, 9월 1일)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노사가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한다.

이번 조정신청은 산별공동투쟁 계획에 따라 우리지부를 포함한 주요 사립대, 국립대등 보건의료노조 산하 124개(136개 의료기관) 지부가 동시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올해 총파업을 결의한 조합원은 보건의료노조 역대 최고 숫자인 5만 6천여 명에 달한다.

현장의 투쟁 열기 불타오르네 “매주 수요일 마스크투쟁!”



한편, 보건의료노조의 투쟁과 더불어 현장 투쟁도 점차 열기를 띠고 있다. 조합원 단체 행동으로 뱃지 달기와 조합원 인증샷 찍기에 이어 구호가 담긴 마스크 쓰기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그 첫날인 어제 18일(수)에 많은 조합원이 참가했다. 마스크 투쟁은 18일을 기점으로 8월 25일과 9월 1일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할 계획이다.

9월 2일로 한 발 한 발 전진, 그리고 승리!

이제 우리의 준비만이 남았다.

조정신청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태도의 변화도 없는 사측을 향해 우리의 투쟁을 보여줄 때이다. 직원을 최고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직원을 위하는 병원은 우리가 움직일 때 쟁취할 수 있다.

국민들도 응원하는 보건의료노조 파업!

18일 어제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조정신청 접수를 알리며 이후 15일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9월 2일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시작과 함께 ‘코로나19 전담병원 치료현장 간호사의 눈물’을 담은 영상 상영과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일반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발언도 있었다.

같은 날, 서울지역본부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온라인 결의대회를 진행했으며 우리지부는 병원별로 간부대의원이 노조사무실에서 참가했으며 조합원들은 모바일을 통해 시청했다. 결의대회는 서울지역본부장의 결심 발언과 지부별 소개를 거치며 파업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공중파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이 기자회견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고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주를 이루었다. 이를 본 국민들의 반응 또한 ‘의사들의 파업과 본질이 다르다.’, ‘보건인력들의 희생만 강요할 수 없다.’는 등의 응원이 담긴 댓글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8월 23일(월) ~ 26일(목)

국민들도 응원하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이젠 보여 줄 때”



푸른하늘 18분전
방호보건쪽의 인력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예견된 상황입니다...그러나 정부는 알량한 리써비스로 방호 최일선에 있는 인력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은것이 없습니다..국민재난지원금도 중요하지만, 100분의1, 1000분의 1 이라도
이런분들을 위해서 돈을 쓰세요,,그거 절대 국민들 뭐라 안합니다...

답글 작성 2 0

정운지 18분전
이번 건은 이기적인 의사들의 파업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웬만하면 의료보건의력 중위해주고 고충을 해결해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막말로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들에게 보급품도 제대로 없이 싸우라고 하면 됩니까?

답글 작성 1 0

동아유니 18분전
응원합니다. 보건인력을 최선만 강요할수는 없어요.
이젠 워드코로나 해야 해요

답글 작성 1 0

빛트앤빛트 18분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답글 작성 2 0



복지부, 9차 노정교섭에서 첫 서면 답변 제출 일부 진전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 “노력·검토·연구하겠다” 유보적 태도...



▲ 12일 보건의료노조는 세종정부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9차 노정교섭을 진행했다.

공공의료 확충, 간호인력대책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검토중

으로 일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와 17일 조정 신청 전 마지막 노정 실무교섭(9차)을 12일 오전 10시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했다. 11일 교대제 개편 토론회를 화제로 협상이 시작된 후 보건의료인력 확충·공공의료 강화 20여개 전체 요구안에 대해 총괄 논의가 밀도있게 이루어졌다. 이날 교섭에서 복지부는 처음으로 문서화된 ‘노조 요구안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일부 요구를 제외하고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간호사 대 환자 수 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불법의료 근절 ▲교대제 개편 ▲토요진료 폐지 ▲70개 중진료권 공공의료 확충 ▲공익적 적자 해소 ▲코로나 대응 인력 기준 마련 ▲생명 안전 수당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여전히 “검토, 연구하겠다” “노력하겠다” “재정당국과 협의해야한다” 면서 유보적 답변

교대제 개편 등

일부 요구 진전된 답변 내놓아

다만 복지부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진전된 답을 내놓았다. 교대제 개편 관련해서는 토론회에서 제출된 문제의식을 반영한 시범사업 계획을, 공공병원 강화는 노조와 정례적인 협의를, 코로나19 대응 인력기준 마련은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도 매우 시급한 사항이므로 중수본과 논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